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2년 8월 31일(수) 총 3매	
담당 부서 보건환경 연구원	담당자	• 기후대기과장 • 담당자	전미희 ☎440-5471 이영주 ☎440-547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도시 숲에서 즐기는 소확행

- 인천시, 10월까지 도시 숲 기능성 조사 실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는 10월까지 기후위
기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도시 숲’의 긍정적 기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시 숲 기능성 조사’는 5월부터 10월까지 8개 공원*을 대상으로
피톤치드 8종, 음이온, 환경소음도, 온·습도를 매월 1회 측정해 숲에
서 얻을 수 있는 이로움을 환경적 가치로 평가하는 사업이다.

* 청량산 산림휴양공원, 함봉근린공원, 계양근린공원, 중앙근린공원, 자유공원,
수봉근린공원, 송도해돋이공원, 청라호수공원

현재까지 조사결과, 도시 숲의 음이온은 354개/cm³으로 도심 대조군에
비해 평균 2배, 스트레스 완화 및 생리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
으로 알려진 피톤치드는 375pptv로 최대 7배가량 높고, 기온은 약 2
℃ 낮게 측정돼, 숲에서 느끼는 상쾌함과 청량함을 과학적으로 증명
했다.

또한, 원도심에 위치한 기존 산림공원은 신규 조성 숲에 비해 나뭇잎 지붕이 넓고 증산작용이 활발해 피톤치드와 음이온은 보다 풍부하고 환경소음도와 기온은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조성 숲 역시 도심 대조군에 비해 피톤치드는 평균 4배, 상대습도는 약 18% 높은 것으로 조사돼 도심 속 주거지에 공원을 확충하고 완성 숲으로 가꾸는 것이 시민 밀착형 기후위기 대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올해 조사된 신규 조성 숲의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숲의 긍정적 기능을 보다 정교하게 증명하고, 완성 숲의 기후 환경적 가치를 다양한 기법으로 평가하는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시 숲 기능성 조사는 기후위기에 맞서보려는 노력으로 시작돼 인천시의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며, “인천 시민들이 집 근처의 크고 작은 숲에서 매일매일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 공원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 관련 사진

함봉근린공원(부평구 백운역)



송도해돋이공원(연수구)

